

박완서 단편소설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의 ‘여성가족로맨스’와 돌봄의 영적 의미

정 연 희*

요약

박완서의 단편소설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에 나타나는 모성적 돌봄을 살펴보았다. 이 모성적 돌봄은 실천 행위를 넘어 영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에코페미니즘의 영성이 위계적 경계를 넘는 유효한 방법이라면 돌봄의 영성은 지구의 다른 존재를 포함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 소설의 돌봄에는 경계에 대한 사유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있는데, 이는 박완서 문학이 관찰해온 억압과 경계에 대한 문학적 통찰과 감수성에 잘 부합하는 면이 있다. 이 소설이 노년의 젠더 문제나 돌봄의 실천 이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전제이자 필요성이다. 본고는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의 돌봄의 영성을 주목하고, 그 돌봄에 내재된 힘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럼으로써 박완서 문학을 에코페미니즘의 윤리와 상상력으로 독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인공 ‘나’는 어머니와 복잡한 상호관계를 맺고 모성 주체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이중성을 발견한다. 그것은 가부장적 젠더 가면과 그 안에 억압되었던 욕망 감정의 맨얼굴이라는 양면성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할 법하다. 그 양면성의 간극은 삶에 미치는 가부장제의 망각한 영향을 실감하게 해준다. 중요한 것은 ‘나’가 인간과 관계로 빛어지는 복잡한 삶의 난해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야 할 ‘난해한 숙제’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련의 서사과정을 통어하는 중요한 모티프가 영적 돌봄이라는 것도 이

* 대전대학교 창의미래인재대학 부교수

소설이 각별해지는 이유이다. 돌봄의 영적 차원을 다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강력한 가부장제의 영향 아래에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용기이고, 둘째는 공식이 통하지 않는 삶에 대한 씩씩한 ‘분노’가 아버지 돌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며, 셋째는 ‘타자에게 존재하기’의 돌봄은 공감하는 심리적 능력 이상으로서 타자와 관계하는 용기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성 주체의 돌봄 과정은 가부장적인 억압 시스템에 개입하고 창의적으로 변화시키는 영성의 잠재력과 관련된다.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는 대응하며 살아온 가부장적 현실이 인간형성과 인간관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삶을 얼마나 복잡하고 아이러니하게 얽혀 들어가게 하는지를 성찰한다. 이 소설이 그려내는 모성적 돌봄의 입체적인 형상은 박완서가 전체 서사에 견지해온 억압에 대한 문학적 통찰력과 감수성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만하다.

주제어: 여성가족로맨스, 양면성, 모성 주체성, 돌봄, 돌봄 업무, 영성, 관계윤리, 연민 어린 분노, 용기, 악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능력, 타자에게 존재하기

목차

1. 서론
2. 모성을 다시 생각하기
3. 젠더 남성의 공포와 젠더 장소의 ‘집’
4. 모성 주체성과 관계윤리로서 영적 돌봄
5. 결론

1. 서론

한국현대문학사에서 여성문학의 지형을 그려볼 때 박완서는 한국 여성 문학에서 만만치 않은 자리를 갖는 작가이다. 무엇보다 ‘가족’과 ‘여성’은 박완서 소설을 관통하는 핵심 모티프이기도 하고 박완서 소설의 연구논

문에서 '여성'과 '모성'이 키워드로 많이 발견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가부장제에 대해 날카로운 시선을 견지해온 그의 소설세계를 여성의 키워드로 연결선을 그어 볼 때 후기작인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이하, 「길고 재미없는 영화」)¹⁾는 모성과 젠더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드러나는 서사이다. 특히 이 소설의 모성적 돌봄은 타자성에 대한 영적 태도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 각별하다. 이는 이 소설이 여성문학의 지형 독서에서 돌봄과 영성의 관계를 지지하는 에코페미니즘 독해로 확장될 수 있음을 함축한다.

여성문학의 관점에서 볼 때 모녀서사는 아버지-아들 플롯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반대서사(counternarrative)로 논의된다. 아버지-아들 플롯이 주체 성장의 가족로맨스를 기반으로 한다면, 여성가족로맨스는 가족로맨스에서 침묵의 조력자나 그림자로 존재했던 여성을 모성 주체성의 서사에 위치시키고²⁾ 모성 경험에 관한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양가성에 주목하는 어머니-딸의 플롯을 부각한다.³⁾ 한국전후소설이 '고향 상실 시대의 부계 문학'⁴⁾으로 총칭되는 아버지-아들의 성장 서사가 핵심 플롯이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남성 가장(남편/아버지와 아들/오빠)이 부재하거나 등장하더라도 서사 후면으로 물러나있고 어머니와 딸, 그리고 어머니-딸의 관계가 전면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에서 박완서 소설은 한국문학사에서 독특한

1) 박완서,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 『라벨룸』, 1997. 봄. 이 논문에서 『그 여자네 집』(박완서 단편소설 전집6, 문학동네, 1999)을 참조하고, 소설 본문을 인용할 경우 이 책의 면수를 밝힌다.

2) 모성 주체성(maternal subjectivity)은 어머니인 여성이 경험하는 주체 위치의 집합체 혹은 표상으로 이해된다. 사회적 힘과 문화적 이미지, 실제 경험과 모자녀 관계, 그리고 그녀 자신이 갖는 복잡한 기대와 욕망 등 그 사이에서 개인 모성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Wendy Hollway, "From Motherhood to Maternal Subjectivity", *International Journal of Critical Psychology*, Vol.2, 2001, pp. 34-5.

3) Marianne Hirsch, *The Mother/Daughter Plot*, Indiana University Press :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1989, pp. 1-13.

4) 전상국·김윤식 대담, 「고향 상실 시대의 부계 문학」, 『신동아』, 1981.8.

자리를 차지한다.⁵⁾

박완서의 전체 서사 중에서 「길고 재미없는 영화」는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와 비슷한 시기에 나온 작품이다. 모녀서사의 계보에서 두 소설과 견주어보면 알 수 있듯이 「길고 재미없는 영화」는⁶⁾ 전쟁의 충격과 자전적인 가족사가 핵심 제재가 되었던 소설들과 다르게 돌봄의 문제를 핵심 모티프로 삼고 있다. 이때 돌봄은 페미니스트의 관점으로만 보먼 미처 해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남는다. 이 소설의 돌봄은 에코페미니즘의 전망 속에서 보았을 때 소설의 각별한 특징이 드러난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길고 재미없는 영화」의 소설 세계를 포착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딸의 시선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딸의 시선이 여성 주체에서 모성 주체로 이동하고, 그런 이동을 표층 차원에서 조율하는 것이 돌봄이라면 심층 차원에 작동하는 것은 영성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지만 화자 ‘나’는 ‘딸’이거니와 ‘딸’이면서 ‘어머니’이기도 한데,⁷⁾ 이런 서사 시간

5) 모성과 여성, 모녀 관계를 키워드로 하는 근래 연구는 다음과 같다. 권명아, 「박완서-자기상설의 ‘근대사’와 여성들의 자기찾기」, 『역사비평』45, 1998, 겨울, 393면; 이선옥, 「모성 다시 쓰기의 의미」, 『여성문학연구』4, 2000, 248-249면; 김복순, 「『말걸기』와 어머니-딸의 플랫폼」, 『현대문학의 연구』20권, 2003, 235-265면; 박정애, 「여성작가의 전쟁 체험 장편소설에 나타난 ‘모녀 관계’와 ‘딸의 성장’ 연구」, 『여성문학연구』13, 2004, 311-336면; 이은하, 「역척 모성의 이중성과 자아 찾기」, 『한국문예비평연구』14, 2004, 269-291면; 정미숙, 「박완서의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의 가족과 젠더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29, 2006, 293-310면; 김윤정,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남편’의 표상과 젠더 정치성 연구」, 『여성문학연구』제30호, 2013, 417-450; 김미영, 「박완서 소설 속 돌봄 인식 방식 연구」, 『국어문학』제72집, 2019, 195-229면; 윤영옥, 「박완서의 『살아있는 날의 시작』에 나타난 정동과 젠더」, 『현대문학이론연구』77, 2019, 154-179면; 선우은실, 「『저문 날의 삽화』 속 주부 화자의 젠더 정치성」, 『우리문학연구』69집, 2021, 429-458면.

6) 「길고 재미없는 영화」는 그나마 노년의 젠더 윤리 관점에서 소략히 언급되어 있는 편이다. 노인-아버지의 성과 사랑을 인정함으로써 노인 젠더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본 것인데, 관련 논문으로 정미숙, 유재분의 「박완서 노년소설의 젠더시학」(『한국문학논총』제54집, 2010, 273-300면)과 양보경의 「박완서 노년소설의 젠더 윤리 양상 연구」(『아시아여성연구』제53권 2호, 2014, 139-166면)가 있다. 그러는 한편 김윤정의 앞의 글은 「길고 재미없는 영화」에서 규범화된 남성성을 해체하고자 하는 작가의 젠더적 글쓰기를 확인한다.

7) 박완서 초기 모녀서사의 ‘딸’들이 전쟁의 압력을 감당하는 청춘(유중호, 「불가능한 행복의 질

의 설정은 모성 주체의 구성을 대변해준다. 동시에 삶의 복잡한 국면 속에서 모성 돌봄의 가치를 재현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모든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돌봄윤리를 이론화하였고, 에코페미니스트는 이들 이론을 중요한 토대로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것은 일찍이 심층생태학이 페미니즘의 비판을 받아들여야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살레의 역설⁸⁾에서 시작하여 페미니스트가 생태의식의 부족을 비판하고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할 것을 스스로 촉구하는 과정에서 에코페미니즘이 성장해온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⁹⁾ 에코페미니즘은 '생태적인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적인 생태학'을 발전시켜 페미니스트와 생태학의 사상과 운동을 연결한다.

에코페미니스트가 지지하는 돌봄이 페미니스트의 돌봄 이론과 많은 부분 겹치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에코페미니스트가 페미니스트들과 다르게 여성과 자연 사이의 연결을 탐구하고 환경철학의 문제에 관심을 갖되, 자신의 작업에 페미니스트 권력분석을 적용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가령 페미니스트의 돌봄윤리가 남성중심주의 비판과 '실천 윤리(Doing Ethics)'를 근간으로 하여 '젠더 정의'에 집중한다면, 에코페미니스트는 남성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의 위계적 구조 비판으로 확대하고 억압의 반대를 성/인종차별주의와 비인간 자연의 종속지배로 확장한다.

페미니즘과 에코페미니즘의 이러한 맥락 차이는 돌봄의 세부 관점에도 나타난다. 돌봄 중심 페미니스트¹⁰⁾가 다양한 억압 반대와 환경철학을 부

서], 『동시대의 시와 진실』, 민음사, 1995, 422-428면)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더욱 흥미로운 점이다.

8) Ariel Kay Salleh, "Deeper than Deep Ecology", *Environmental Ethics* 6, 1984, pp. 339-40.
 9) Val Plumwood, "GENDER, ECO-FEMINISM AND THE ENVIRONMENT", Edited by Rob White, *CONTROVERSIES IN ENVIRONMENTAL SOCI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 43.
 10) 통과 보츠는 페미니즘의 교차하는 관점들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캐럴 길리건, 넬 나딩즈, 세라 러딕, 버지니아 헬드, 예바 키테이를 돌봄 중심 페미니즘으로 구별하여 소개한 바 있다 (로즈마리 p. 통 & 티나 F. 보츠, 김동진 역,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 학이시습, 2019, 319-354면).

정하지는 않지만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의와의 관계에서 돌봄윤리를 정립한다는 것, 돌봄의 물질적 필요에 반드시 적절한 응답이 상응해야 한다는 것, 돌봄의 대상자를 돌봄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의존자(유아, 노인, 장애인 등)나 온전한 이방인(가족과 친구 등)으로 집중한다는 것¹¹⁾이다. 여성/자연/문화의 관계를 연구하는 에코페미니스트의 돌봄 윤리는 영적 차원을 인정하면서 심층의 관계 윤리를 정립하고 돌봄의 범주도 확장된 또는 ‘난잡한’¹²⁾ 친족 모델을 포용한다. 영적 페미니스트로 잘 알려진 스타호크는 영성의 중요한 속성인 서로를 돌보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새롭게 다시 엮어 나가거나 상처를 회복시키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영성이 이론과 실천에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에코페미니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는 카렌 워렌은 “돌봄에 민감한 윤리(care-sensitive ethics)”¹³⁾를 강조함으로써 영성을 둘러싼 논쟁을 의미 있게 재구성한 사람일 것이다. 즉, “억압적인 시스템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존재가 치유의 존재가 되려면 다른 인간에게서 인간성을 알아보고 지구의 다른 존재를 돌보는 능력을 개발”¹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길고 재미없는 영화」는 표면적 서사로 보면 노년 부모를 부양하는 이야기이지만, 그 심층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운 ‘타자에게 존재하기’로서 영적 차원을 함축하고 있다.¹⁵⁾ 이런 까닭에 공감하는 심리적 능력 이상으로 정의되는 ‘영적 돌봄 혹은 돌봄의 영성’은 「길고 재미없는

11) 버지니아 헬드,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돌봄윤리』, 박영사, 2017, 28-92면 참조.

12) 성적 문란함을 뜻하는 단어지만, 여기에서는 돌봄의 관계를 맺는 데 그 대상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다. 난잡한 친족 모델은 비인간 생물과 무생물뿐만 아니라 완전히 생명부지의 사람을 포함하며 그 관계를 무한히 증식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더 케어 컬렉티브, 정소영 역, 『돌봄선언』, 니케북스, 2021, 42면.

13) Karen Warren, *Ecofeminist Philosophy*, Rowman&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0, pp. 97-123.

14) Karen Warren, *Ibid.*, p. 203.

15) 부양의 이유가 “효도 따위보다 훨씬 진실하고 썩썩한 분노” 때문이라는 화자의 언급은 이 소설의 돌봄을 이해하는 데 소홀히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문장이자 대목이다.

영화」의 돌봄을 이해하는 유용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모성’과 ‘돌봄 윤리’는 「길고 재미없는 영화」를 관통하는 핵심소재이다. 그런데 여기에 영성을 도입하지 않고서 이 소설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돌봄의 영성이 해명될 때 억압적인 가부장제의 시스템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을 바로 잡으며 그를 통해 우리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박완서 소설의 타자 윤리학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길고 재미없는 영화」를 세밀하게 독해하고 이를 통해 돌봄에 내재되어 있는 윤리적 감수성으로서 영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주인공의 ‘시선’으로 포착되는 어머니의 삶이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으로 강제되는 가부장적 현실과 주인공 ‘나’의 ‘관심’이 어떻게 삶과 관계의 복잡한 국면으로 얽혀 들어가는지를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관심이 배려와 공감 이상으로 ‘다른 사람/타자에게 존재하기¹⁶⁾에 이르는 돌봄의 영성에 관한 논의로 마무리할 것이다. 「길고 재미없는 영화」의 돌봄의 영성을 살피는 일은 돌봄 대상이 지구의 다른 존재를 포함하는 타자로 확장될 수 있는 ‘깊은’ 돌봄과 그것의 소설적 재현을 성찰하는 것이기도 하다.

2. 모성을 다시 생각하기

페미니스트 정치에서 모성 경험을 사이에 두고 갈등이 존재해왔다. 모성 담론의 재검토는 활발해졌지만, 여전히 어머니를/로서 말하는 것을 주

16) 이는 워렌의 표현이다. 다른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타자’에 흡수되거나 합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인간은 대상이 인간이든 돌고래이든 바위이든 타자를 대할 때 ‘자기중심/인간중심’의 입장을 ‘비우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자기 자신의 필요와 욕구와 관점을 ‘비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Karen Warren, Ibid., pp. 202-3)

저하는 것이 페미니스트 수사학에서 발견된다. 많은 부분에서 딸의 관점을 채택하는 여성서사가 알려주듯이, 특정한 생물학적 여성 경험을 이상화하고 신비화하는 것도 위험이거니와 확실히 여성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여성과 모성 간의 동일시를 되살리거나 굳히는 위험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성의 목소리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1990년대 소설에서 여성화자들은 모성 공포에 시달리는 형편이다.¹⁷⁾ 2018년 작인 한강의 「내 여자의 열매」¹⁸⁾의 주인공도 어머니-집이 상징하는 모성에서 벗어나고자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았다는 점에서 그리 다르지 않다. 모성은 여전히 “여성 억압과 예측의 근원이었고 가부장제와 공모해야 하는 강제적 이성애의 산물”¹⁹⁾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길고 재미없는 영화」도 문화적 모성 규범을 강제하는 가부장적 가족 안에서 모성 공포를 가진 딸의 시선이 등장한다. ‘나는 어린 시절에 이런 저런 수모를 겪는 어머니를 보았고 그런 어머니를 혐오하면서도 경애한다. 그런데 ‘나는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 탈/동일시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며 모성의 정체성을 심문하는가 하면, ‘나의 돌봄은 억압적인 사회시스템에서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짜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우선 어머니의 서사를 말하면 이렇다. 어머니는 식민지시대 말기에 맞선을 보고 결혼하였다. 소학교만 나온 어머니는 자기 생각은 내색도 못한 채 부모님 뜻에 순종할 밖에 없는 결혼을 한다. “투덕투덕 복스럽다는 것 외”엔 볼 게 없는 어머니는 “당신이 할 일은 시부모를 극진히 받들고 시동생 시누이들하고 우애 있게 지내라는 거”라는 아버지의 선언을 듣고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 어머니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아버지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길은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고 시부모님의 눈에 드는” 것

17) 권명아, 「모성의 집에 대한 공포」, 『문학동네』6권2호, 1999, 1-4면.

18) 한강, 「내 여자의 열매」, 『내 여자의 열매』, 문학과지성사, 2018.

19) 이진옥, 「오래된 모성의 급진적 재구성」, 『젠더와 문화』13권1호, 2020, 175면.

이었고 “아버지가 갈아들이는 소실에 대해 전혀 투기하지 않”는 것이다. 어머니는 그것을 훌륭하고 완벽하게 해냈다. 오히려 그런 수모와 치욕의 삶을 결연한 깔끔함으로 품위 있고 당당하게 지켜냈다.

묘사되는 어머니는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낯설지 않은, 오히려 전형이랄 수 있는 모성상을 완벽하게 구현한다. 그렇다고 한들 어떻게 개인으로서 조금의 원망이나 분노를 터뜨리지 않을 수 있으며 일말의 갈등이나 욕망 한 번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가. 수모와 치욕의 삶을 당당하게 견지해온 어머니를 높이 우러르면서도 ‘내가 어머니를 환멸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라만큼 완벽하게 살아낸 이념적이고 제도적인 모성의 삶일 것이다. ‘나의 관점으로 보면 어머니의 삶은 요령부득의 불가해한 삶(“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일 뿐만 아니라 “배알을 빼놓지 않은 이상 어머니처럼 그렇게 철저히 욕망이나 분노를 감추고 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딸-페미니스트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어머니는 여성-딸의 비(탈)동일시 표적이 되고 중요한 부정적 모델이 된다. ‘나의 경멸에는 어머니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도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어 같은 삶을 살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할 만다. 만약에 딸이 자신의 가족 서사에서 타협과 자기혐오에서 벗어나려고 분투하고 있으면, 그 딸은 자신이 벗어나고자 하는 그 타협과 자기혐오를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가장 친숙한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²⁰⁾ ‘나의 어머니 경멸은 이렇게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신이 방심하면, 어머니에게 깊이 이끌려 어머니와 갈아질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모성공포를 포함하는 것이다. “사춘기를 거치고 인생에 대해 뭘 좀 아는 척을 하고 싶어”지는 ‘나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머니를 미워하고 경멸하는 것이 어머니를 훨씬 넘어 존재하고 어머니보다 훨씬 먼저 존재하면서 항상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 보일 수 있다.

20) 에이드리언 리치, 김인성 역, 『더이상 어머니는 없다』, 평민사, 2018, 267면. 리치는 이렇게 해서 여성 존재에 대한 제약과 비하가 필연적으로 전수된다고 설파한다.

‘나의 시선에 의하면 자발적이든 타발적이든 현모양처의 이념이 어머니 행동을 결정하는 거의 유일한 동기처럼 되었다는 점에서 ‘나의 어머니는 가부장제에 길든 여성이라고 간주할 만하다. 그러나 이는 「길고 재미 없는 영화」의 한 국면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이 소설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작가가 어머니의 내면을 드러내는 대목을 마련해놓았다는 점이다. ‘내가 결혼을 앞 둔 어느 날,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넌 연애결혼이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서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일러두는 건데, 혹시 첫날밤 네 신랑이 제 부모 잘 모셔야 한다는 소리를 제일 먼저 하거나 계집은 또 얻을 수 있어도 부모는 또 얻을 수 없다는 식의 수작을 하거든, 그 자리에서 그 혼인 파투 치고 나와도 나는 너를 내치지 않으마. 야단도 안 치마. 그 쪽만 귀하게 기른 자식인 줄 알지 말거라. 너도 똑같이 귀하게 길렀어.(138면)

어머니의 발화에는 두 목소리가 울리고 있다. 여태까지 ‘내가 알아온 대로라면 어머니는 가부장제 안에서 길들고 가부장적 가족 안에서 삶을 단단하게 굳혀온 대표단수로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법도 하다. 그런데 어머니 발화는 모성 담론 속에서 자기 분열을 품고 있는 개인 주체의 존재를 알린다. 사랑에는 분노가, 자존심에는 고통이, 자비로운 부드러움에는 슬픔이 복잡하고 섬세하게 뒤섞여 있다. 위풍당당하고 위엄 있는 ‘강한 어머니’의 가장무도회는 “어머니의 비장하다 못해 결사적인 자존심”이었음을 ‘나는 어렵פות이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병에 걸리고 만다. 말기 암환자가 된 것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재미있는 것은 정작 문제되는 것이 따로 있다는 점이다. 어머니가 암 수술 후 팔약근의 문제로 생리조절이 안 되는 것이다. 왜 말기 암보다 팔약근이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난해한 삶의 아이러니로 ‘나를 압도해오는 상징적 메타포로 이해된다. “일생을 자기의 한숨 소리 한 번

체대로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잔뜩 오므리고만 사신 어머니가 자기 항문도 못 오므리게 된 치욕적인 마지막"을 보내게 된 것이다. 그것은 단지 항문이 아니라 "사람의 체면 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온갖 것들이 포함"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내가 떠맡고 싶은 건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똥구멍이었다. 생판 남이 어머니의 똥구멍을 진저리 치며 구박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그건 효도 따위보다 훨씬 진실하고 씩씩한 분노였다.

하필 항문의 고무줄이 빠질 건 뉘였을까,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에게 그건 얼마나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을까. 나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대가로라도 그 치욕을 다소나마 가려 주는 일을 맞고 나설 수밖에 없다.(129면)

'내가 어머니를 돌보게 된 이유를 피력하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양하려는 것은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인 것인데, 그것을 '효도'라고 말하기에는 그 표현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다. 차라리 '효도보다 훨씬 진실하고 씩씩한 분노'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나의 돌봄이 단순히 몸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을 깊이 연민하고 어머니의 자의식을 감싸 안는 돌봄이라는 사실을 예증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만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나의 돌봄이 "식구들한테 못 할 노릇만 시키면서 너절하게 산 아버지"를 가해자로 하는 서사구조를 입체적인 관계의 서사구조로 바꾸어 놓는다는 점이다. 이는 '나의 돌봄을 성찰하는 그녀 자신의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어머니가 치욕적인 마지막을 보냈으니까, 식구들한테 못 할 노릇만 시키면서 너절하게 산 아버지는 혹시 우아하게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요행수를 바란 건 아닐까? 그건 아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해

드린 은혜 갚음을 하고 싶은가? 그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어머니 편에만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차라리 공식이 통하지 않는 그 난해함 때문에 그 일을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는 게 조금은 더 맞는 말이 될지도 모르겠다.(149면)

‘나의 돌봄이 어머니 자체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어머니의 편에서 삶의 공정함을 조율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다. 차라리 삶의 이치나 공식이 통하지 않는 요령부득의 삶 때문이라는 의미이다. 온갖 수모를 견디어온 어머니에는 하다못해 늙어가면서 얼굴이 점점 더 보기 좋아지는 삶의 보상이 따르거나 추악하게 살아온 아버지에는 경박하고 불품없어지는 삶의 대가가 따르기는커녕, 사람살이는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난해한 숙제”가 되는 것이다. 이 요령부득의 복잡한 사람살이는 아버지에 매개된 타자성이기도 하다. 잘 알고 있는 것에서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세계로 이동하는 것이 일종의 ‘영적 운동’이라면,²¹⁾ 아버지 돌봄의 예감은 미지의 낯선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될 문턱에서 서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가 필요와 욕구로 가득 차 있거나 상처에 골똥해 있다면 타자에게 주의 기울이기란 불가능할 터이다. 자기를 비움으로써 가능한 이 돌봄은 ‘타자에게 존재하기’를 가능하게 한다. ‘내가 어머니를 희생자로 아버지를 가해자로 보는 관점을 견지하는 한 ‘나의 돌봄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필요와 욕구와 상처를 비울 수 있을 때 그 여백으로 가부장적 가족 질서 아래에서 아버지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가족과 젠더의 문제를 어떤 형상으로 그려 내는지의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이며 또한 남성젠더의 문제를 살필 차례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21) Karen Warren, *Ibid.*, p.196.

3. 젠더 남성의 공포와 젠더 장소의 '집'

젠더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여성과 모성을 다양하고 유동적이며 심지어 불안정한 구성물로 읽어야 한다면, 남성성도 획일성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 위치가 덧붙은 형식이자 표현으로 읽어야 한다. 남성(maleness)이 생물학적이라면 남성성(masculinity)은 문화적이기 때문이다. 남성은 남성성을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남성들이 문화적으로 동화되어 들어가는 어떤 것이고, 적절한 문화적 방식으로 재생산하도록 학습한 사회적 행위 규칙들로 구성되어 있다.²²⁾ 우리가 젠더로서 여성과 모성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동시에 젠더로서 남성을 말하는 것이 되는 이유이다. 그런데 젠더 논의가 '여성성'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그럼으로써 무심결에 남성성의 문제를 간과한다면, 젠더의 문제에서나 삶 전체의 문제에서 일면적인 의미만을 간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젠더 관점에서 박완서를 여성주의 작가로 여길 때, 그의 소설세계에 나타나는 남성다움의 형식과 표현들은 남성의 문제를 젠더의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²³⁾ 특히 「길고 재미없는 영화」는 가부장제 가족 규범 안에서 형성된 인간형상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아버지의 내력을 정리하면 이렇다.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통제하고 거세하며 마음의 고통을 주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다. 아들을 낳아서 양육한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할머니는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순종하고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질 장남이란 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철저히 교육”시켜 왔으며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듬직한 색식감”을 들이도록 아버지를 강제한다. 그

22) 존 베이넌, 임인숙·김미영 역, 『남성성과 문화』, 고려대출판부, 2001, 14-15면.

23) 김미현(「1970년대 박완서 소설의 '남성성' 연구」, 『상허학보』51집, 2017, 435-459면)은 박완서의 1970년대 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남성성의 유형에 따라 박완서의 탐구를 검토하였다.

러나 마음과 욕망까지 순종하지 못한 아버지는 죄책감을 가지면서도 “세라복을 입은 여고생을 동경”하고 평생 소실을 갈아치웠으며 자신의 아내이자 ‘나의 어머니를 철저히 무시했다. 그뿐이 아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들어온 늙은 아버지는 들어와서도 아내를 데면데면하게 대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위암 수술을 위해 입원하러 들어가는 날 아침까지 병든 아내가 사력을 다해 차린 밥상을 받았다.

다른 한편으로 주목할 것은 아버지가 “세라복을 입은 여고생을 동경”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세라복을 입은 여고생’은 식민지 시대의 억압과 미몽에서 벗어나려는 ‘자유와 해방의 표상’²⁴⁾으로 보기는 어렵다. 서사적 문맥으로 보아 가부장적 장남의 역할을 거역하지 못하지만 순종하지도 못하는 아버지가 당시 ‘소비되는 문화적 표상’ 속에서²⁵⁾ 자신의 갑갑증을 푸는 출구의 의미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박완서가 어머니를 구여성의 이미지로 그려놓고 있다는 데에서 좀더 잘 확인할 수 있다. 두 이미지의 대립 구조는 ‘어머니-집’과 ‘세라복 여고생-집 바깥’의 공간 구도로 이해할 만하다. 이 구도는 ‘어머니-집’과 ‘소실/롯데월드광장-집 바깥’의 구도로 연장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젠더 장소로서 ‘집’을 벗어나 평생을 ‘집 바깥’에 거주한 셈이다.

‘세라복을 입은 여고생의 동경’은 가부장제 가족 안에서 아버지가 느꼈을 압력에 대한 반발의 일환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나가 보기도 “소실 집에 있는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하고는 전혀 딴사람 같”아 보였으며 “집에서는 경직되고 근엄하고 불편해 보이던 아버지가 거기에서는 편안하고 자유스럽고 느긋해 보”였다. 이는 아버지가 장남의 도리를 무시하지 못하

24) 신식여성성을 둘러싼 풍속에 대해서는 김진송의 『서울에 댄스홀을 허하라』(현실문화연구, 1999, 202-223면)를 참조하였다.

25) “무슨 구경을 그리하느라고 날마다들 야단이며, 무슨 쥐라나 쥐잡네(主義者입네)하고 시집을 가래도 안가고...집에 오니 개수통에 손가락하나 담글까요 길레질 한번 칠까요...연엔지 빌어먹는 것인지 사람 버리겠습니다”. 「관계자간의 신년 소원」, 『별건곤』, 1929. 1.(김진송, 앞의 책에서 재인용)

면서도 그것이 몸을 옥죄는 걸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예증해준다. '나'는 아버지가 숨 막히게 하는 가부장제의 규범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피질 자리를 찾아 난봉을 핀 게 아니었을까" 짐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계의 법을 거스르지 못하면서도 또 부계의 법에 완벽하게 충성하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집'은 숨이 막히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소설이 흥미로운 것은 억압적인 가부장 현실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삶도 억압하고 왜곡할 수 있음을 포착하게 하는 작가의 배치이다. 짐-아버지와 짐바깥-아버지의 분열이 그것인데, 이 이중성의 간극은 그의 반발과 일탈이 그 자신의 삶을 얼마나 왜곡하고 비틀어진 방향으로 이끌었는가를 대변해준다. 장남 된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오빠의 자책감도 젠더 이념 현실의 일그러진 얼굴과 다르지 않다. 그것은 가부장제의 영향력이 막강해서 누구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소설은 구성원들이 대응하며 살아온 가부장적 현실이 인간형성과 인간관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그리고 삶을 얼마나 복잡하고 아이러니하게 얽혀 들어가게 하는지를 성찰하고 있다. 이것이 '나'에게 제기된 사람살이의 "난해한 숙제"일 것이다.

'나가 풀어야 할 난해한 숙제는, '아버지의 고백과 어머니의 폭소' 장면에서 드러나듯이, 인간적 맨얼굴과 젠더/이데올로기 가면 사이의 간극도 포함한다.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싶어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콧물을 들이마시는 것도 같고 딸꾹질을 참는 것도 같은 이상한 소리가 섞여 들어서, 나는 어머니에게는 무선전화기를 갖다드리고, 계속해서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 어머니도 뜻밖인지 약간 어눌하고 떨리는 소리였다. 저쪽에선 아직도 짓눌린 딸꾹질 같은 소리만 들렸다. 전화 바꿨어요. 전 괜찮아요. 많이 나왔어요. 참다 못해 어머니 혼자서 말을 이어갔다. 그러고도 한참 만에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여보, 사랑해, 사랑

해, 사랑해요. (...)

어머니는 의사가 예언한 생존기간도 미처 못 채우고 돌아가셨지만 칠십에 처음 들은 사랑의 고백 때문에 그 동안을 즐겁게 보내셨다. 똥구덩이에 빠져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아버지도 말로만 아니라 거의 매일 같이 어머니를 문병했고 똥도 치우고 싶어했지만 어머니가 그것만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죽을 때까지 사랑받고 싶어서 그 꼴만은 안보이고 싶었나보다. 어머니 뒷자리를 잡는 데도 정성을 다하셨고, 장례 때도 수시로 그 딸꾹질을 참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며 눈물을 뚝뚝 흘려서 우리를 민망하게 했다.(143면)

인용문에서 묘사되는 것은 경직되고 근엄한 아버지도 아니고 성군의 증전마마와 같이 결연한 어머니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거의 날 것에 가까운 욕망과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아버지의 가부장 가면과 어머니의 중부 가면 속에 억압되거나 숨겨진 욕망과 감정들로 간주할 만하다. ‘나’는 뜻밖에 보게 된 노부모의 양면적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양면적 모습의 그 넓은 간극을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나’는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것이다. “까닥하면 아버지의 임종을 책임지게 될지도 모를 이번 결정을 후회할지 안 할지는 더군다나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천방지축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이 조화를 부리는 인간살이”의 난해함을 풀기 위해서 ‘나’는 아버지 돌봄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예감하는 것이다.

4. 모성 주체성과 관계 윤리로서 영적 돌봄

살펴본 대로 「길고 재미없는 영화」는 어머니의 부양기이며 아버지의 부양 예정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나’의 돌봄이 삶의 난해함을 푸는

것과 관련되고 그것이 인간과 삶의 양면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 돌봄에 내재된 힘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힘이 관계와 삶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먼저 '나'가 어머니 돌보기의 이유로 언급한 "효도 따위보다 훨씬 진실하고 씩씩한 분노"라는 말을 확인해보자. 왜 '효도'보다 '분노'인가. 효도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분노를 강조한 셈인데, 무엇에 대한 분노인가. 작품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우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마땅히 화를 내야 할 일에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겨지고...그러한 사람은 사물을 느끼지도 않고 고통을 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²⁶⁾라는 『니코마스 윤리학』의 구절이다.²⁷⁾ 이는 분노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비폭력의 이론과 실천으로 널리 회자되어 왔다. 이 분노를 에코페미니즘의 '연민 어린 분노'와 연결 짓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리고 '나의 연민과 결합된 이 분노는 돌봄의 영성²⁸⁾으로 이해할 만

26)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Book4, Section5, In The Basic Works of Aristotle, New York: Random House, 1941, p.996.(requoted from Karen Warren, *Ecofeminist Philosophy*, Rowman&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0, p.201)

27) '나'가 어머니를 대단하게 여기면서도 '경멸했던 것'을 분노의 관점에서 이해할 만하다. '나'는 어머니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배알을 빼'놓은 것처럼 살아서 경멸했던 것인데, 이는 어머니가 자기 삶을 스스로 방어하지 않고 모욕을 참는 노예 같은 삶이라고 간주한 것과 다르지 않다.

28) 영성은 에코/페미니스트 정치와 실천에서 동의되지 않는 논쟁의 대상이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영성이 여성에 대한 유해한 젠더 고정관념을 남성보다 더 자연에 가깝고 남성보다 덜 합리적이며 감정적이라고 강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성이 철학에서 배제되는 것은 그것이 사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경험에 근거하여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논쟁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성이 종교적 심성과 닮았지만 주술에 가깝고 합리적 과학보다 심리적 도약을 더 사랑한다는 점에서 이들 논쟁의 근간을 이해할 수 있다. 영성에 관해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에코페미니즘』, 손덕수·이난아, 창작과비평사, 2000)의 정의가 널리 알려졌다면, 카렌 워렌은 영적인 전통들이 실제 에코페미니즘의 실천과 행동에 풀뿌리 역할을 하였다는 점, 에코페미니스트의 이론과 실천에 의식과 상징의 의미와 가치를 제기하였다는 점, 인식론적으로 즉각적이고 구체적이며 감각적인 경험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들어 에코페미니즘의 중요성

하다.

영성이 주술이나 종교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까닭은 그것이 과학적 논리와 합리적 이론으로 논증되기보다 몸을 지나서 마음을 넘어 영혼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른바 경계 넘기의 '도약과 관련되는 것인데, 이는 남녀/인종/인간-비인간자연의 이분법을 넘어 모든 생명체에 내재한 생명의 의지를 일깨우고 가꾸어나가는 에코페미니스트의 희망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원리가 된다. 에코페미니스트의 영성은 이론과 실천에 대한 의식이나 상징체계의 관련성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에코페미니스트 철학에 개념적으로 여성-다른 인간타자-자연의 연결에 대한 중요한 고려점도 제공한다. 영성은 인식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도 중요하다. 그런데 개념으로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이분법, 혹은 경계 넘기는 생각이나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 그것은 친밀한 존재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낯설고 혐오스러운 타자로 이동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카렌 워렌은 이런 이동을 '영적 운동'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이미지로 설명한다.

두 개의 문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상상해보자. 그녀의 뒤에 친숙하고 잘 알려진 과거의 문이 있다. 그녀의 앞에는 낯설고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문이 있다. 그녀는 뒤의 문을 잡고서 앞의 문을 열기 위해 손을 뻗는다. 하지만 실패한다. 그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앞의 문을 열 수가 없다. 손이 닿는 곳에 있지만 그녀가 뒤의 문에서 손을 떼는 경우에만 열 수 있다. 그 어디에도 딱 붙어 있지 못하고 두 문 사이에서 부유할 때 그녀는 뒤의 문에서 손을 떼면 그것이 짧은 길든 매우 두려운 시간이 있을 것을 안다.²⁹⁾

을 부각하였다. (Karen Warren, Ibid., pp.193-213).

29) Karen Warren, Ibid., p.196.

「길고 재미없는 영화」의 돌봄은 '나'가 아는 상식과 이치로 보았을 때 “도저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설명되어지지 않는 복잡하고 난해한” 인간과 삶의 타자성으로 촉발된다. 어머니, 특히 아버지의 양면성과 업과는 '나'가 믿었고 의지했던 삶의 공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간극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중성의 분열을 합일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양극을 연결 짓고 통합하여 그 다면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일 텐데, 그것은 어떤 경계를 넘는 '도약과 맞먹는 일이다. 그러려면 '나는 익숙한 문에서 손을 떼고 앞에 놓인 낯선 문을 열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한다. 두 문 사이에서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해서 그것이 길든 짧은 길이 후회하고 아찔하게 두려운 시간에 놓일지라도 말이다.

사람팔자는 관 뚜껑을 덮을 때까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난해한 숙제로구나. 아버지가 어떻게 죽게 될지 그걸 누가 알랴. 까딱하면 아버지의 임종을 책임지게 될지도 모를 이번 결정을 후회할지 안 할지는 더군다나 알 수 없는 일이다. …… 나는 내가 그렇게 어머니 편에만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차라리 공식이 통하지 않는 그 난해함 때문에 그 일을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는 게 조금은 더 많은 말이 될지도 모르겠다.(149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보기로 결정한다. 논리적 당위나 이념적 실천 전략이 작용한 결심이 아니다. 깊은 연민이 어린 강한 분노와 인과응보의 공식을 배반하는 삶에 대한 분심이 커다란 에너지가 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분심은 징벌과 폭력이 아니라 포용과 배려로 도약하는 엔진이 된다. “효도 따위보다 훨씬 진실하고 씩씩한 분노”라고 밝힌 돌봄 이유는 이런 의미의 연장선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한편, '나'가 이렇게 돌봄 엄두를 내는 것은 '인정'의 용기도 포함한다. '나는 자신과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아버지와의 공통점을 대

담하게 보는 것이다. 그것이 종종 자신의 가장 소중한 믿음(‘삶의 공식’)에 고통스럽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말이다. “우리가 감히 보살필 때, 우리는 인간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니라 모든 증오와 사랑, 잔인함과 연민, 두려움과 기쁨이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발견”한다.³⁰⁾ 그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즉 “영적인 의미에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나쁜 사람”을 우리 자신에게서 볼 수 있는 용기이다.³¹⁾ 아버지의 고백이나 어머니의 폭소와 같은 일련의 장면들에 ‘나’가 진지하고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억압적인 가부장적 현실의 비의도적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자발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오빠뿐만 아니라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장남의 도리를 다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가진 오빠가 장례식장에서 실종일관 “길기만 하고 재미없는 영화가 마침내 끝났구나, 하는 얼굴로 상주 노릇”을 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가해자의 생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려준다. 그에 비해 ‘나’는 아버지-가해자와 어머니-희생자의 인식구도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부장적 가족 안에서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거나 도덕적 판단이 변한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 아니다. 악의 가능성을 가진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꺼이 담대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나’는 가부장적 가족 구성원으로서 받았을 상처들을 치유하고 돌볼 수 있게 된다. ‘나’가 “난해한 영화를 보고 나면 혹시라도 이번엔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한두 번 더 보게 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이러한 일련의 모성 주체의 돌봄 과정은 가부장적인 억압 시스템에 개입

30) Henri J. M. Nouwen, *Out of Solitude: Three Meditations of the Christian Life*, Notre Dame, Ind.:Ave Maria Press, 1974, pp. 42-3.

31) Karen Warren, *Ibid.*, p.196.

하고 창의적으로 변화시키는 영성의 잠재력과 관련된다.

이렇듯 「길고 재미없는 영화」는 타자 관계 윤리의 감수성³²⁾, 즉 영적 돌봄의 감수성을 잘 재현하고 있다. 특히 「다른 사람-타자에 존재하기」에 따르는 돌봄의 능력은 공감하는 심리적 능력 이상이라는 점에서 각별하다. 「나의 아버지 돌봄 업무는 관계의 용기라고 할 만하다.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그려낸 모성적 돌봄의 입체적인 형상은 박완서 작가의 전체 서사에 관통하는 억압에 대한 문학적 통찰과 감수성을 성공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5. 결론

박완서의 단편소설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를 대상으로 하여 모성적 돌봄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모성적 돌봄은 실천으로서 돌봄을 넘어 타자에 대한 관계의 용기를 포함하는 영성으로 이해된다.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는 박완서 전체 서사를 관통하는 억압에 대한 문학적 통찰과 감수성을 잘 보여준다. 이 소설은 노년의 젠더 문제나 실천 행위로서의 돌봄 이상으로 해석되어야 할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이 논문의 전제이자 필요성이다. 본고는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의 모성적 돌봄의 영적 차원을 주목하여 검토하였다.

32) 관계 윤리로서 돌봄은 에코페미니즘에서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여성 원칙과 관련이 있다. 살레는 일찍이 말하기를 여성은 월경과 임신과 출산과 양육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미 자연과 공존한다는 지식 속에서 여성의 의식을 닦아왔다. 그러므로 심층 생태학이 주장하는 인격의 영적 계발을 위해서는 자기 소외의 남자가 자기 안에 본래 있는 구성적 여성의 측면(the feminine aspects of men's own constitution)을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Ariel Kay Salleh, Ibid., p.340-4). 그러는 한편 신두호는 심층생태론자들의 인식에 여전히 존재하는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력을 깨닫는 것이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신두호, 「남성과 에코페미니즘」, 『영미문학 페미니즘』제9권1호, 2001, 64면).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인공 ‘나’가 모녀의 상호관계에서 모성 주체로 나아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나’는 어머니에 동일시와 비동일시의 혼란스러운 관계를 맺는 한편, 젠더 타자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의 분열을 발견한다. 그것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지배적인 가부장제의 젠더 가면과 그 안에 억압되었던 욕망 감정의 맨얼굴이라고 할 만하다. 이 소설이 중요한 것은 ‘나’가 인간과 관계로 빚어지는 삶의 난해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야 할 ‘난해한 숙제’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련의 서사과정을 통어하는 중요한 모티프가 영적 돌봄이라는 것도 이 소설이 각별해지는 이유이다. 돌봄의 영적 차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강력한 가부장제의 영향 아래에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용기이고, 둘째는 공식이 통하지 않는 삶에 대한 씩씩한 분노가 아버지 돌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며, 셋째는 ‘타자에게 존재하기’의 돌봄은 공감하는 심리적 능력 이상으로서 타자와 관계하는 용기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련의 모성 주체의 돌봄 과정은 가부장적인 억압 시스템에 개입하고 창의적으로 변화시키는 영성의 잠재력과 관련된다.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는 모든 구성원이 대응하며 살아온 가부장적 현실이 인간형성과 인간관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삶을 얼마나 복잡하고 아이러니하게 얽혀 들어가게 하는지를 성찰한다. 이 소설이 그려내는 모성적 돌봄의 입체적인 형상은 박완서 작가가 꾸준히 밀고 온 경계와 억압에 대한 문학적 통찰과 감수성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만하다.

| 참고문헌 |

- 박완서,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 『라벨룸』, 1997. 봄. (『그 여자네 집』(박완서 단편소설 전집6), 문학동네, 1999, 126-149면)
- 권김현영, 『남성성과 젠더』, 자음과 모음, 2011.
- 권명아, 「박완서-자기상실의 '근대사'와 여성들의 자기찾기」, 『역사비평』45, 1998. 겨울.
- , 「모성의 집'에 대한 공포」, 『문학동네』6권2호, 1999, 1-4면.
- 김미영, 「박완서 소설 속 돌봄 인식 방식 연구」, 『국어문학』제72집, 2019, 195-229면.
- 김미현, 「1970년대 박완서 소설의 '남성성' 연구」, 『상허학보』51집, 2017, 435-459면.
- 김복순, 「딸결기'와 어머니-딸의 플롯」, 『현대문학의 연구』20권, 2003, 235-266면.
- 김윤정,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남편'의 표상과 젠더 정치성 연구」, 『여성문학연구』제30호, 2013, 417-450면.
- 김진송, 『서울에 탄스홀을 허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 박정애, 「여성작가의 전쟁 체험 장편소설에 나타난 '모녀관계'와 '딸의 성장' 연구」, 『여성문학연구』13, 2004, 311-336면.
- 선우은실, 「『저문 날의 삽화』 속 주부 화자의 젠더 정치성」, 『우리문학연구』69집, 2021, 429-458면.
- 신두호, 「남성과 에코페미니즘」, 『영미문학 페미니즘』제9권1호, 2001, 49-70면.
- 양보경, 「박완서 노년소설의 젠더 윤리 양상 연구」, 『아시아여성연구』제53권 2호, 2014, 139-166면.
- 유중호, 「불가능한 행복의 질서」, 『동시대의 시와 진실』, 민음사, 1995.
- 윤영옥, 「박완서의 『살아있는 날의 시작』에 나타난 정동과 젠더」, 『현대문학이론연구』77, 2019, 154-179면.
- 이선옥, 「모성 다시 쓰기의 의미」, 『여성문학연구』4, 2000, 247-266면.
- 이은하, 「억척 모성의 이중성과 자아 찾기」, 『한국문예비평연구』14, 2004, 269-291면.
- 이진옥, 「오래된 모성의 급진적 재구성」, 『젠더와 문화』13권1호, 2020, 175-190면.
- 전상국·김윤식 대담, 「고향 상실 시대의 부계 문학」, 『신동아』, 1981.8.
- 정미숙, 「박완서의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의 가족과 젠더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29, 2006, 293-310.
- 정미숙·유제분, 「박완서 노년소설의 젠더시학」, 『한국문학논총』제54집, 2010, 273-300면.

- 한경희, 「전쟁 모성'이 생산한 여성 의식」, 『현대소설연구』제67호, 2017, 447-488면.
- 더 케어 컬렉티브, 정소영 역, 『돌봄선언』, 니케북스, 2021.
- 미스, 마리아·시바, 반다나, 손덕수·이난아 역, 『에코페미니즘』, 창작과비평사, 2000.
- 리치, 에이드리언, 김인성 역, 『더이상 어머니는 없다』, 평민사, 2018.
- 베이넨, 존, 임인숙·김미영 역, 『남성성과 문화』, 고려대출판부, 2001.
- 통, 로즈마리 & 보츠, 티나, 김동진 역,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 학이시습, 2019.
- 헬드, 버지니아,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돌봄윤리』, 박영사, 2017
- Hirsch, Marianne, *The Mother/Daughter Plot*, Indiana University Press :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1989, pp.34-5.
- Hollway, Wendy, "From Motherhood to Maternal Subjectivity", *International Journal of Critical Psychology*, Vol,2, 2001.
- Nouwen, Henri J. M., *Out of Solitude: Three Mediations of the Christian Life*, Notre Dame, Ind.:Ave Maria Press, 1974, pp. 42-3.
- Parker, Rozsika, *TORN IN TWO: The Experience of Maternal Ambivalence*, London; Virago Press, 2005.
- Plumwood, Val, "GENDER, ECO-FEMINISM AND THE ENVIRONMENT", Edited by Rob White, *CONTROVERSIES IN ENVIRONMENTAL SOCI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p. 43-60.
- Salleh, Ariel Kay, "Deeper than Deep Ecology", *Environmental Ethics* 6, 1984, p.340-4.
- Warren, Karen, *Ecofeminist Philosoph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0.

<Abstract>

‘Female Family Romance’ and the Spiritual
Meaning of Care in Park Wan-seo’s
“When the Long and Boring Movie Ends”

Jeong, Yeon Hee

We looked at the maternal care that appears in Park Wan-seo's short story “When the Long and Boring Movie Ends”(hereafter “Movie Ends”). Here, maternal care is special in that it is understood as a spirituality that includes courage in relation to others beyond caring as a practice. “Movie Ends” is a novel that shows Park Wan-seo's literary insight and sensitivity to oppression well. The premise and necessity of this thesis is that this novel has meaning and value that should be interpreted beyond the gender issue of old age and care as a practical ethic. This paper examines the care of “Movie Ends” and examines the spiritual dimension of maternal care.

The review contents are as follows. The process of the main character ‘I’ moving from her mother and daughter's mutual relationship process to the maternal subject was examined. In the process of going through identification and non-identification with her mother, ‘I’ leads to discovering the duality of her father, who can be said to be a gender other. It, like her mother's duality, is no different from the gap between the full mask of the dominant patriarchy and the bare face of the feelings of desire repressed therein. The gap between these ambivalences is not to be ignored as the difficulty of life, but is regarded as a ‘difficult homework’ that ‘I’ must solve. An important motif acting on this series of narrative

processes is caring.

The spirituality of caring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shows the courage to admit that all family members can be both perpetrators and victims under the influence of the powerful patriarchy. Second, the courageous anger at the fact that the formula of life does not work is caring as ‘being present to the other’. Third, such caring has a spiritual meaning beyond the psychological ability to empathize as a courage to relate to others.

This series of maternal subject care processes is related to the potential of spirituality to intervene and creatively change the patriarchal system of oppression. “Movie Ends” reflects on how much the patriarchal reality that all members have responded to affects human formation and human relationships, and how complicated and ironic it makes life. The three-dimensional shape of maternal care drawn in this novel is a successful example of the literary insight and sensitivity sensitive to oppression penetrating the entire narrative of Park Wan-seo.

Key words: female family romance, ambivalence, mater subjectivity, mother-daughter relationship, caring, dare to care, spirituality, ethic of relationship, anger with compassion, courage, to see in ourselves the bad person, being present to the other

투 고 일 : 2022년 8월 20일

심 사 일 : 2022년 9월 14일

게재확정일 : 2022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 2022년 9월 22일